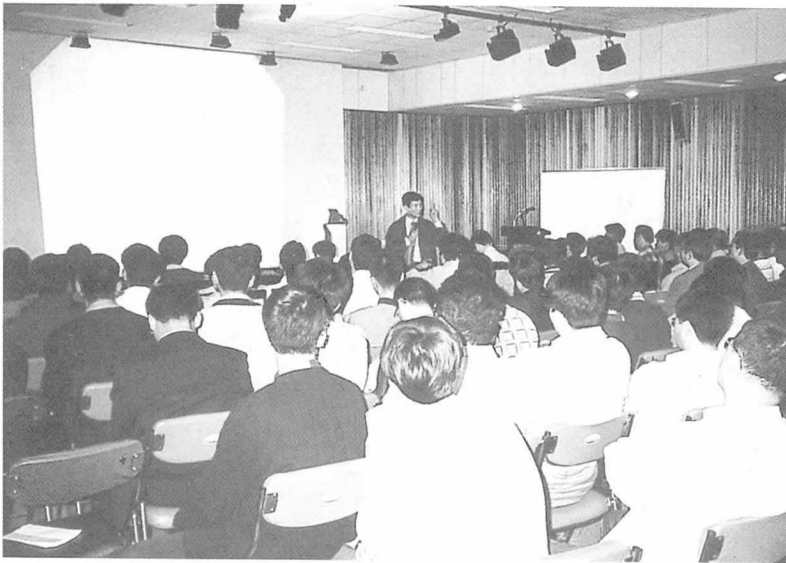


# 부로우건을 이용한 멧돼지 백신접종 교육현장

## -농진청, 각 시도, 시군 예방접종요원 교육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준현 연구관이 전국 163개 시군 돼지콜레라 방역담당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및 방역요령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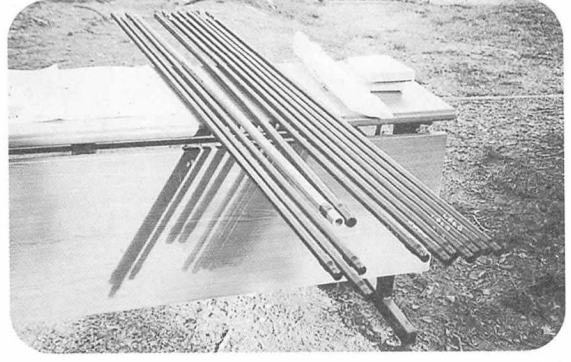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축산연 종축개발부(충남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 0417-580-3369)에서 전국 163개 도청(도 대책본부) 및 농업기술원 관계관, 시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요원,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멧돼지 예방접종방법 연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축산연에서 개발한 멧돼지 예방접종방법을 소구

모농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지원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시군 예방접종요원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을 통해 멧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및 방역요령 ▲멧돼지 예방접종 요령 ▲멧돼지 예방접종방법 연시 및 실습 등의 순서로 개최되었다.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준현 연구관은 정부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방역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돈에 대한 백신접종은 1차로 생후 40일(5~6주령), 2차는 생후 60일(8~9주령)에 근육주사를 통해 정확히 접종해야 하며, 그 외 후보돈 및 모든, 웅돈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실시하되, 모돈은 분만후 3주경에

〈취재 : 이병석 대리〉



▲백신용 장비, 부로우건용 주사기 및 개체표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색소를 부착할 수 있는 특수제작 바늘(왼쪽)등과 직경 16mm 파이프로 제작된 부로우건(오른쪽)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권 연구관은 자돈의 이행항체 수준과 백신면역 효과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돈의 이행항체수준이 16~18%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생후 40일령으로 이때 1차 백신접종을 해야만이 97% 이상의 백신면역 효과를 나타내므로 정확한 시기에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신접종 횟수와 관련해 자돈에 대해 2회까지만 백신접종을 하면 항체가가 97% 이상을 유지하므로 그 이상 백신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멧돼지의 백신접종 요령과 관련해 멧돼지의 경우 웅돈과 비육돈에 한해 백신접종을 1회만 할 것을 권장했다. 모돈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할 경우 자돈에 대해 모돈항체가가 이행되기 때문에 모돈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손동수 과장(축산연 검정기술과)은 멧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백신



▲축산연의 한 연구원이 부로우건을 이용해 돼지에 백신접종을 시연하고 있다.

접종을 하기 위한 부로우건 등 장비의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백신접종 방법을 시연했다. 손 과장은 멧돼지의 경우 난폭하고, 사람에게 대해 공격을 하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멧돼지로부터 5~6m 거리에서 부로우건을 겨냥해야 하며, 접종 전 24시간 전부터 멧돼지를 절식시킨 후 귀 뒷부분의 목 부위, 즉 피하지방이 가장 얇은 부위에 정확히 백신접종을 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로우건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사바늘을 재사용시 소독에 유의하며, 주사기 및 바늘은 안전하게 보관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축협중앙회에서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부로우건, 주사기 등 멧돼지 예방접종기구를 준비해, 각 시군 별로 배부하였다. **양돈**